

진리란 무엇인가? - 제1편

진리의 체계: 요한계시록, 예언적 병행 및 알파와 오메가

Jeff Pippenger

2023-08-05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이 연구를 요한계시록 1장의 처음 세 절로 시작했고, 이어서 엘리야에 관한 글을 덧붙였음을 밝힌다. 이 연구들의 몇 가지 목적은 예언에서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를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예수께서 알파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처음 세 절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들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처음과 끝 모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밝히신다.

우리는 두 번째 연구에서 엘리야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통해, 성경의 첫 구절들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구절들과 일치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신약의 첫 구절들도 성경을 전체로 보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그 시작이나 끝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격을 서서히 드러내 오셨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언약 역사라는 주제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 이름이 지닌 상징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이 드러내셨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으나,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지게 될 것임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다니엘서 3장에서 한 바벨론 사람이 그 이름을 한 번 표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밝히셨을 뿐 아니라, 그 특정한 언약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인자라고도 밝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의 시작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밀러파 재림운동에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에 이처럼 가까이 이른 때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세상과 너무도 비슷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을 헛되이 찾아야 하겠는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독특한 특징을 어느 누가 팔아버리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호의를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겠는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라 이름하신 자들이 위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게 한 믿음의 구별되는 요점들을 지워 없애려 애써야 하겠는가?" 복음전도, 12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붙여 주신 것이며, 화잇 자매는 재림교인들을 종종 하나님의 명명된 백성이라고 부른다. 'Denominated'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화잇 자매가 하나님의 명명된 백성으로 지목한 교회는 오직 두

교회뿐인데,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나가면서, 나는 또한 14만 4천으로도 대표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계시되는 '새 이름'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언적 비밀의 큰 부분이라고 제안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2, 13.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이며,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계시이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야 한다. 자비의 빛의 마지막 광선,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와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행하신 바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415, 416.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에 관해 기록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진리'라는 단어를 다루겠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진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을 이루는 글자들에 대한 이해는 곧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 까닭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18:37, 38.

그 구절에서 "진리"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히브리어의 한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단어는 문자이자 심지어 숫자이기도 하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레프"이다.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두 글자는 "알레프"와 "베타"이며, 이는 그리스어의 처음 두 글자인 "알파"와 "베타"와 매우 비슷하다. 이 둘이 합쳐져 "알파벳"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 따라서 "알파"(히브리어 문자 알레프에서 유래)는 문자, 단어, 숫자로 쓰일 뿐 아니라 예수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로도 사용된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와 또 "태어난" 이유가 "진리"에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진리에 속한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덧붙이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진리: G225-G227에서 유래; 진리: - 참된, X 진실로, 진리, 진실. G227-G1(부정 불변화사로서)와 G2990에서 유래; 참된(감추지 않는다는 의미): - 참된, 진실로, 진리. G1; A. 히브리어에서 유래; 알파벳의 첫 글자: 비유적으로만(숫자로 사용되는 데서) 첫째. 알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문자이자 숫자이자 단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곧 문자 '알파', 단어 '알파', 숫자 '알파'가 모두 '진리'라는 뜻이다. 다니엘서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히브리어 '팔모니'의 정의인 '기묘한 수를 헤아리는 이'로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한 어떤 거룩한 자'로 번역되어 있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상번제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그 환상, 곧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겠느냐?"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13절의 "그 특정한 성도"는 "Palmoni" — "놀라운 계산자", 또는 "비밀의 계산자" — 이다. 이 두 절에서 2300년의 예언과 2520년의 두 예언이 제시되어 있다. 2300년은 "성소"를, 두 개의 2520년 예언은 "백성"을 다루는데, 성소와 백성 모두 로마에 의해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2520년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밀을 헤아리시는 놀라운 분으로 소개하시는 바로 그 성경의 지점에서 시간에 기초한 세 가지 심오하게 서로 연결된 예언이 제시된다. 그분이 자신을 시간의 주재자로 소개하기 위해 단지 이 두 절을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두 절이 그분이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과 언약에 들어가실 때를 지목하며, 또한 그 두 절은 재림주의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기도 하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되었던 성경 구절은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선언이었다. [다니엘 8:14.] 대쟁투, 409.

1798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 나타나 밀러주의 운동 시대에 일어난 예언적 지식의 증가를 표시했으며, 그것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주의의 시작이었다. 다니엘서가 밀러주의자들에게 봉인이 풀렸을 때, 팔모니로부터 온 기별, 곧 때에 관한 기별이 이해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항상 끝을 시작과 연결하여 보여 준다. 그러므로 재림주의의 끝에도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재림주의의 시작과 끝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명시된 관계에도 근거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을 대표하며, 그 대표성 안에서 이 둘은 두 증인으로서, 첫째는 다니엘서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2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두 권이지만 하나의 책이다. 이는 성경이 하나의 책이면서도 구약과 신약, 혹은 시작과 끝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제시되는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다.

두 증인에 관하여 선지자는 덧붙여 말한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계시록 11:4; 시편 119:105.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대쟁투, 267.

다니엘과 요한은 두 증인으로서, 둘 다 박해를 받았고, 둘 다 사로잡혔으며, 둘 다 같은 예언적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도록 맡겨졌고, 둘 다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며, 둘 다 예루살렘 멸망의 여파 속에서 살았고, 둘 다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요한은 끓는 기름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밝히며, 이는 영감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중심 기둥과 기초'라고 부르는 두 구절에서 나타난다. 그 두 구절은 '완성석', 곧 윌리엄 밀러의 사역으로 대표된 기초 위에 놓인 마지막 돌이었다. 그 완성석은 하늘 성소,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조사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다. 다니엘은 책의 시작이고, 요한은 끝이다.

요한의 기록은 재림운동의 끝에 드러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밝혀 줄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그분은 수학적인 모든 것의 창조주요 놀라운 수를 세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현대 이스라엘의 끝에서는 놀라운 언어학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분은 언어의 구조, 문법 규칙, 단어들, 심지어 알파벳의 글자들까지,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단어로 이루어지고 문법 규칙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분의 설계에 따른 알파벳으로 기록되는 의사소통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분은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그분은 눈먼 준비되지 않은 라오디게아인들을 성화된 빌라델비아인들로 변화시키신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sanctify"로 번역되는 단어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 십사만 사천 명은 거룩할 것이며, 그들은 '진리'로, 또는 그의 '말씀'으로 그러한 성품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1-3.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물론 창세기에 처음 기록된 내용과 대응합니다. 또한 증언을 더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1절에서 "God"으로 번역된 단어는 복수형으로,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분 이상임을 드러낸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창조주이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성령으로 대표되는 신성과 교회들에 보내질 책들에 실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격 속에서 드러난 인성을 결합하여 성경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것이다. 타락한 육에 속한 인간들이 관여했음에도 성경은 거룩하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 또한 거룩하였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고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하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다.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19-21.

비록 선지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이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이며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록된 말씀에서 신성과 결합된 인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해 참인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참인데, 그분은 곧 성경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시고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이셨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주제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가 숨겨져 있다. 로마서 11:33.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의 교제를 마구간의 짐승들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만족은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낮아지심의 시작에 불과했다. 에덴에서 아담이 무죄함 가운데 서 있던 때의 인간 본성을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거의 무한한 낮아지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가 사천 년의 죄로 약해졌을 때 인성을 받아들여 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과 같이 그분은 유전의 대법칙이 작용한 결과들을 받아들여 주셨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었던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이런 유전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함께 나누시고, 죄 없는 생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시대의 소망, 48.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성경을 만들어 내셨을 때, 들을 자들이 듣게 하시려고 성경 안에 규칙들을 두셨다. 성경을 규율하는 규칙들은 또한 그분의 성품의 속성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고 끝난다. 여기에서 다니엘서가 보완된다." 사도행적, 585.

"complement"라는 단어는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다니엘의 증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므로, 다니엘의 증언이 시작이고 계시록이 끝이 된다. 계시록의 시작은 계시록의 끝에서 반복되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문자적 이스라엘과 문자적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바벨론이 승리하지만, 다니엘서 11장 45절과 12장 1절에서

은혜의 시기가 마무리될 때에는 영적 바벨론이 영적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바벨론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증언의 시작은 그의 증언의 끝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교리는 신앙 공동체가 옳다고 여기는 내용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목적이나 용례는 성경이나 기독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소위 '기독교'에서는 참된 교리보다 거짓 '교리'가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이는 영적 바벨론인 교황권이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기 때문이며, 그 새들은 악을 상징한다. 그 악은 '율법은 폐지되었다'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통해 교회들에 의해 유지되고 은폐된다. 그러나 참된 교리도 있다.

베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편견으로 인해 편협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의 진리성을 기꺼이 검증하고자 했다. 그들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하여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은 날마다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들을 탐구했고,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고 감화를 주었다.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서 선포되든, 진실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게 된다.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 국면에 이르러 시험하는 진리가 전해지는 사람들이 베리아 사람들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자신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비교적 소수에 그치지 않고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가 제시되면, 많은 이들은 이러한 탐구를하기를 거부한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논박할 수 없으면서도,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일을 극도로 꺼린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들이 정말 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원수가 영혼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듣기 좋은 꾸며낸 이야기들에 집착한다.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고, 그들은 하늘과 분리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그분의 사신들을 보내시며, 그 기별을 듣는 자들이 그분의 종들의 말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 그분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진리를 진심으로 찾는 자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사도들의 행적, 231, 232.

'복음의 진리'인 '교리'가 있으며, 그것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중 일부는(모두는 아닐지라도) '시험의 진리'다. 안식일은 이해하기 쉬운 시험의 진리다. 참된 교리도 있고 거짓된 교리도 있다. 참된 교리 가운데에는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시험이 되는 것들도 있다. 또한 특정한 시기를 위해 주어진 진리도 있다. 이러한 진리들을 '현재의 진리'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한 진리가 많이 담겨 있지만, 지금 양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진리'입니다. 나는 사역자들이 현진리의 중요한 요점에서 벗어나, 양무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영혼을 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들에 머무르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이 대의를 해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틈타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2,300일과 관련하여 성소,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나는 자주 보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사자들이 집중하여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이었다. 초기 저술, 63쪽.

재림교인들은 이 구절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자주 이용한다. 그들은 우리의 '현재의 진리' 메시지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오로지 성소, 2300일,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지적된 바를 피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

이 네 가지 위대한 진리의 목적은, 그것들이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의심하는 이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완벽하게 고안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네 가지 현재의 진리 교리는 재림운동의 시작(과거의 재림운동)이 재림운동의 끝(우리의 현재 입장)을 예증한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고안되었다. 그 네 가지 핵심 교리는 끝이 시작에 의해 예증된다는 원리를 설명하도록 '완벽하게 고안되어' 있다. 이 영감의 구절에 따르면, 이것이 지금 '양 떼가 필요로 하는' '현재의 진리'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현대 이스라엘은 끝이다.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은 1798년 종말의 때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을 예표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현대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관습과 전통에 의존함으로 인해 눈멀어 있었다(라오디게아적).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가 맞서야 할 원수가 어떤 자이며, 우리가 그에게 맞설 준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떨린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련과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에 그들이 보았던 태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하게 될 형편을 보여 주기 위해 내 앞에 거듭거듭 제시되었다. 곧 원수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노렸고, 오늘날에도 그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들이 귀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선택된 메시지, 제2권, 406쪽.

우리의 다음 참고 자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에게 그 본래의 진리는 출애굽의 역사였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본래의 진리였고,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진리였다. 그들은 실패했으며, 재림교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눈먼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의 틀 안에 두셨다.

구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진리라는 귀한 보석을 전통과 전설의 잡동사니로 덮어 버려,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미신과 오래도록 붙들여 온 오류의 잡동사니를 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석을 진리의 틀 속에 제자리에 놓으시기 위해 오셨다. 구주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분은 전통과 의식의 잡동사니를 걷어 내는 비슷한 일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분이 이 일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를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미신과 오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눈에 띄지 않게 묻혀 버렸고, 오류와 미신으로 인해 광채를 잃고 매력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진리의 아름다운 광채를 그 신적 영광 그대로 나타내신다. 정직한 이들의 마음은 감탄으로 가득 찬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의 보석들을 꺼내어 그들이 깨닫도록 보여 주신 그분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끌린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일부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통의 찌꺼기를 쓸어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의 참된 핵심과 중심을 드러내셨다. 그가 이렇게 하시자 그들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격분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퍼뜨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낡은 형식들은 없애셨지만, 옛 진리들은 진리의 틀 속에 다시 확립하셨다. 그분은 그것들을 서로 맞추어 결합시키셔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진리의 체계를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 구주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조화롭게 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소문에 휘둘리겠는가? 우리 자신의 상상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서 가리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읽고, 깨달음을 가지고 듣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생수와 레바논의 눈을 계속 찾으며, 백성들을 진리의 샘에서 솟는 살아 있고 시원한 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

초림 때에 예수께서는 "옛 진리들을 회복하시고 그것들을 진리의 틀 안에 놓으셨다. 그는 그것들을 서로 맞추고 결합하여 완전하고 균형 잡힌 진리의 체계를 만드셨다." 예수께서는 옛 진리들을 다시 확립하시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를 사용하셨으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진리들을 주제별로 서로 맞추고 병행시키며, 줄 위에 줄을 더하듯 서로 결합시키셨다. 그는 유대인들을 눈멀게 했던 관습과 전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 역사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였다.

재림주의는 고대 이스라엘 종말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전통과 관습이 낡은 라오디게아적 눈멀음을 제거하기 위해 진리를 담아 넣을 틀을 마련하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접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옛 진리들'은 진리의 '틀' 안에 놓여, 예언의 줄기를 다른 예언의 줄기들과 병행하여 '줄 위에 줄'로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라오디게아인이 그 눈멀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의 본이 되신다.

성경에는 교리로 분류되는 진리들이 있고, "많은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 그러나 진리가 계시될 때 살아 있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인 "현재의 진리"도 있다. 예언적으로 이것은 재림주의의 네 번째 세대에서 일어나며, 이 "세대에 대한 시험"인 "현재의 진리"는 재림주의 초기 세대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며,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서 성경의 모든 구절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천적 진리의

중대한 요점들이 신비 속에 가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세상이 시험을 받아야 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게 되고, 마침내 고리와 고리를 찾아내어 완전한 사슬로 이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사실은 누구도 길을 잘못 들거나 어둠 속을 걸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흐름을 따라 시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계시된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 위에 비추는 빛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과거 세대에 살았던 이들은 그들에게 비추도록 허락된 빛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하는 성경의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마음을 쏟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빛에 대해서는 그들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과 관련된 특별한 진리가 펼쳐지는 때는 이 땅에 살게 될 마지막 세대들이 살아가는 때입니다.

"특별한 진리들은 각 세대가 처해 온 형편에 맞게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진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지만, 먼 과거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비추는 빛이 과거의 세대들에게 주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을 것이다." 증언, 제2권, 692, 693쪽.

재림주의 역사에 네 세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이들을 위해 나는 하박국의 판들을 가리키고자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심판받는 백성'을 뜻한다는 점이다. 재림주의의 시작은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고, 재림주의의 끝은 심판의 종결을 선포한다. 심판의 종결은 제3세대와 제4세대에 이루어진다.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삼사 대까지 갚거니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수천에게는 자비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4-6.

심판의 끝에, 라오디게아(심판받는 백성) 재림주의의 최후 세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을 받고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심을 당할 것이다. 성경의 교리들은 진리이며, 시험의 진리들도 있고 또한 현시대의 진리들도 있다. 현시대의 진리는 항상 시험의 진리이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시험의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거부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든지 방금 우리가 실패한 시험의 진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왔다'는 것과, 그 이유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며,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두 '진리에 속해 있다'고 빌라도에게 알리셨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말한 '진리'라는 단어는 'truth'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비롯되었고, 구약에서 127번 나타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H571)는 영어의 여러 단어로 번역되지만, 구약에서는 92번 'truth'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여러 차원에서 심오하고 강력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어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히브리어에서는 각 글자에 고유한 의미가 있어 그 글자들로 만들어진 단어는 각 글자의 결합된 의미가 어우러져 단어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룹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중간에 한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이렇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진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리고 그 사이의 한 글자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에 대한 정의이다. 어떤 주제가 처음으로 제시될 때의 언급이 그 단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이며, 그 단어는 씨앗과 같아서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모든 DNA를 담고 있다. "첫 언급의 법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언급은 마지막 언급인데, 그곳에서 시작과 끝 사이에서 생겨난 모든 이야기들이 한데 묶인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고 끝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truth"는 첫 글자가 "Aleph", 열세 번째 글자는 "Mem",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글자는 "Tav"이다. 물론, 이러한 글자들의 정의에는 어느 언어학자에게 정의를 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의만으로도 매우 유익하다.

א (Aleph):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종종 하나됨과 연관되고, 신성과 영원을 나타내며, 신과 창조물 사이의 연결을 상징한다.

מ (Mem):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며, 종종 물과 관련이 있다.

ט (타브):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이며, "표식" 또는 "징표"라는 의미를 지닌다. 종종 완성의 개념이나 창조의 "봉인"과 연관된다. 고대 히브리 문자에서 타브 글자는 십자가 모양이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글자가 함께 영원한 복음을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 글자의 뜻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이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며 창조주를 예배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 그 세 글자 중 첫째인 (알레프)의 정의는 "신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창조주로서 사람들이 경외하며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다.

알레프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부르고, 성령이 부어질 때를 표시하며, 바벨론의 반역을 드러낸다. (Mem)의 정의는 물과 연관되어 있으며(성령의 부으심의 상징),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기도 하다. 숫자 13은 반역의 상징이므로,

이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Mem은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셋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며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다. (타브)의 정의는 그것이 '표'(짐승의 표)와 창조주(하나님의 인)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 글자 자체는 십자가 모양이다. 타브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그분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알아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표이다. 멸하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은 주께서 양자로 삼으신 아들과 딸들에게서 갈보리 십자가의 표징을 본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는 제거된다.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신실하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이들이 말과 행실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마라나타, 243.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글자는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그 세 가지 의미는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그 의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운동의 시작에 주어진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운동의 끝에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첫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든 예언적 이정표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세 히브리 문자의 의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뿐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그때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장차 있을 일들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끝을 보여 주기 위해 시작을 기록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밀러파의 기별,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선포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아왔다. 그러한 진리들과 그 역사를 연구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첫째 천사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843년과 1844년에 우리를 다른 교회들로부터 나오게 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905년 1월 19일.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메시지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힘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21권, 437.

"우리가 1841년, 42년, 43년, 44년에 받은 진리들은 이제 연구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371.

"경고가 왔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온 이래 우리가 그 위에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여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빛을 구하던 가운데 우리 발이 놓였던 그 토대에서 발을 떼려는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 빛은 주어진 때로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4월 14일.

첫째 천사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선포된 역사는—몇 가지 예언적 단서와 함께—우리의 현재 역사와 병행하며 이를 보여 준다. 그 두 역사는 또한 신적 언어학자가 '진리'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세 글자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단어는 영원한 복음을 나타낸다.

재림운동 초기의 밀러파의 역사는 첫째 천사를 대표하며, 재림운동 말기에 셋째 천사가 대표하는 역사와 더불어 두 역사는 서로 병행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천사는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고 셋째 천사는 심판의 종결을 선포한다. 재림운동의 역사가 전개된 예언적 구조는 그 초기와 종말에서 동일하다. 양 끝 모두가 역사 속에 도래하는 세 천사의 세 단계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 천사는 또한 그 세 문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림운동의 양 끝에서 일어나는 예언적 사건들의 연속은 세 천사의 세 단계에 기초해 있으며, 그것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그 세 히브리어 문자로도 표현되는 이정표들이다.

알파는 재림주의의 시작을, 오메가는 그 끝을 의미하며, 가운데 있는 글자, 곧 열세 번째 글자는 재림주의의 반역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나이까? 시편 77:13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세 단계임을 발견한다. 성소의 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여 칭의를 얻게 한다. 성소에서는 성화가, 분향단이 상징하는 기도의 삶, 진설병 상이 상징하는 배움의 삶, 등잔대가 상징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타난다. 지성소는 심판을 나타낸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성소의 뜰, 곧 십자가 발 아래에서 칭의를 구한다. 우리가 칭의(의롭게 됨)를 받으면, 성소가 상징하는 성화된 삶의 새로움(거룩함에서의 성장) 가운데 행한다. 성소는 한밤중 외침이 동반된 둘째 천사의 기별 기간 동안 밀러주의자들이 수행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나타낸다. 칭의와 성화를 받은 우리는 지성소가 나타내는 심판을 위해 준비된다. 성소의 세 단계는, 다른 것들 가운데서도, 세 가지 신학 용어—칭의, 성화, 영화—를 나타내며,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고, 물론 첫째 천사의 기별도 나타내며, 그리고 물론 "truth"라는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 글자도 나타낸다.

성소의 뜰에서도 우리는 이 세 단계를 모두 발견한다. 성소로 들어가는 첫 단계는 성소의 마지막 단계를 예표해야 하는데, 이는 첫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상응하는 것과 같다. 뜰의 첫 단계는 제물을 잡아 죽이는 행위로, 칭의를 나타낸다. 둘째 단계는 물두멍으로, 최종 단계에 앞서 기름(죄)이 제거되고 제물이 정결하게 된다. 물두멍의 물은 둘째 단계의 특징이다. 셋째 단계는 실제의 번제로, 심판이 성취된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성소의 첫 단계 안에도 같은 세 단계가 있으며,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같은 세 단계가 있다.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는 성소 안에 있으며, 세 천사의 기별에 있는 것처럼,

"truth"라는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 속에도 있다.

2300년 예언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예언은 세 가지 칙령으로 시작하여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래함으로써 끝났다. 이 예언은 다섯 개의 예언적 계열을 제시하며, 2300년 예언의 초기 역사는 그 다섯 예언 각각의 마지막 역사를 대표한다. 전체 2300년 예언의 시작과 끝에는 세 가지 칙령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세 가지 기별로 끝난다.

예언의 시작은 기원전 457년의 어려운 시기에 주어졌고,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성전과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예언과 일치하게,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그 작업은 49년 뒤 어려운 시기에 마무리되었다. 49년의 시작은 49년의 끝을 보여 준다.

기원전 457년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기름부음을 가리키는 예언의 시작을 뜻한다. 그분의 기름부음은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백성을 모으시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기원전 457년에 실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던 것과 같다.

기원전 457년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를 밝혀 주는 예언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화이트 자매는 십자가의 역사를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과 관련짓고, 홍해 횡단의 역사 또한 대실망과 연결시킨다. 기원전 457년에 있었던 실망은 홍해에서 히브리인들이 겪은 실망, 재림교인들의 대실망,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겪은 실망, 그리고 기원전 457년에 에스라가 겪은 실망을 예표하였다.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실망스러울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소유하게 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재산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안일과 편안함을 사랑했고, 그대로 머무는 것에 매우 만족해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선지자와 왕들, 612쪽.

기원전 457년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이혼당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지를 밝혀 주는 예언의 시작을 표시하며, 이는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490년의 특별한 은혜의 기간의 종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기원전 457년은 그들의 은혜의 기간의 시작을, 서기 34년은 그들의 은혜의 기간의 끝을 나타내며, 이는 전형적으로 1844년에 재림운동의 은혜의 기간이 시작되어 일요일 법령에서 끝남을 보여 준다.

2300년의 예언 안에는 또 몇 가지 시간 예언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그 예언들의 시작은 그 끝을 보여 준다.

주목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되었고, 현대 이스라엘은 그분의 율법뿐 아니라 그분의 예언의 말씀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주께서 밀러 운동의 역사 속에서 현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박국의 두 판으로 상징되어 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에 나타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기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은 현대 이스라엘의 시작을 예증한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위탁을 맡기려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게 하려 하셨다. 그들을 통해 하늘의 빛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비치고, 모든 민족에게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리게 하려 하셨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큰 권세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호가 되시고, 모든 민족 위에 그들을 높이셨을 것이다. 그의 권능과 진리는 그들을 통해 드러났을 것이며, 그들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서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보다 그의 통치가 우월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숭배 관습을 따라 행했으며, 온 땅에서 그들의 창조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멸시받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위에 압제의 손을 내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 열방 가운데 흠으셨다. 환난 가운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다. 이처럼 이방 여러 나라에 흠어진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전파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라는 강력한 쪼개는 도구—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를 통해 그분은 한 백성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과 거룩한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들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 삼으셨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위탁하셨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하도록 맡겨진 거룩한 위탁이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셋째 천사의 경고는 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별의 일부이며,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서 그에 못지않게 널리 퍼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새겨진 깃발은 높이 게양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기별의 능력은 셋째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예언에서는 그것이 하늘 가운데를 나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것은 세상의 주목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다. 공황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내는 죄라면 그것은 분명 끔찍한 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사람들은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았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사람이 왜 그 심판이 내리는지 알고 피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대의 징조, 1910년 1월 25일.

두 개의 판의 제작은 하박국 2장을 성취한 것이었으며, 여러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망대 위에 나를 세우고,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든 대답할지를 보려고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환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판에 분명히 써서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지만, 끝에는 말할 것이며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스스로 높아진 그의 영혼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1-4.

1843년 선구자 도표와 1850년 선구자 도표의 제작은 모두 예언의 성취였다. 하박국의 판들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해당 구절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논점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숫자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고, 그분의 손이 그것 위에 있어 몇몇 숫자에 있는 실수를 숨겨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저술, 74, 75.

1843년 이후 주님께서는 다른 도표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지만, 첫 번째(1843년) 도표는 영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진리가 판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땅과 그 충만함이 주님의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보았다. 나는 그 오래된 도표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고, 영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도표의 어느 수치도 변경되어서는 안 됨을 보았다. 나는 그 도표의 수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였고, 그분의 손이 그 위를 덮어 일부 수치에 있는 실수를 숨기셔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음을 보았다. 스폴딩과 매건, 2.

1850년 도표를 제작한 니콜스 형제와 함께 살면서, 그가 그 도표를 만들던 당시, 화이트 자매는 자신이 성경에서 그 1850년 도표를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니콜스 형제가 도표를 출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았다. 나는 이 도표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 도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한 사람에게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누군가 더 큰 크기로 새로 그린 도표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그만큼 필요하다. 원고 발간물, 제13권, 359쪽.

하박국은 "묵시를 기록하며, 그것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했다. 하박국의 두 판은 하나님이 재림주의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자신의 예언의 수탁자로 삼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두 돌판과 그 율법을 맡을 책임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환상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주어진 그 판들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구분한다. 한 부류는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의인"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규정된다.

하박국의 문맥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두 개의 판으로 나타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밝히며,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재림주의의 시초를 거부하였음을 드러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본 한

구절에 근거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2,300일과 관련하여 성소,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나는 자주 보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사자들이 집중하여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이었다. 초기 저술, 63쪽.

우리는 방금 이 네 가지 진리—성소, 2,300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를 검토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진리를,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 주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진리의 틀 속에 배치했다. 그 틀은 “최초 언급의 규칙”이며,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이고, 진리의 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단어가, 재림주의의 시작을 설명하도록 고안된 “현재의 진리”로 지칭되는 그 네 가지 진리와 동일한 표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진리’로 번역된 단어가 영원한 복음의 틀이며, 최후의 경고 기별의 틀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의 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큰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제시된 최종 경고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다시 한 번 증언된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구약의 처음 구절들과 또한 마지막 구절들을 증언한다. 이 네 가지 본문을 두고 예언의 줄 위에 예언의 줄을 놓는 신적 규칙을 적용하면, 최종 경고 메시지는 창조주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창조 능력과 관련된다. 그것은 그분의 창조 능력이 그분의 교회에 어떻게 전해지는지와 관련된다. 그것은 끝을 시작과 동일시하는 신성의 속성과 관련된다. 그것은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다. 이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 능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의 서두에 나온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덮여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라, 마른 땅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그 속에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 속에 씨가 있는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것들이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이 되게 하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에 빛을 비추는 광명이 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으니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생물을 풍성히 내고, 하늘의 넓은 창공에서 땅 위로 날아다닐 새도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들이 그 종류대로 풍성히 낸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서 기어 다니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상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 날에 쉬셨음이라. 창세기 1:1-2:3.

앞선 구절들은 창조 전체의 증언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할지어다; 온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고,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8, 9.

세상을 지으신 그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우주 만물을 존재로 불러내신 창조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능력을 부여하며 생명을 낳는다.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것을 의지로 받아들이고

영혼에 품을 때, 그것은 무한하신 분의 생명을 함께 가져온다.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재창조한다.

이와 같이 주어진 생명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태복음 4:4)으로 산다. 교육, 126.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천사에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는 선지자에게로 전해진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서 제시된 이 소통 과정은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다리로도 묘사된다. 또한 성소로 기름을 들여보내는 스가랴의 두 금관으로도 예시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은 성경 예언의 주제이며, 보내지는 그 메시지에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들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가 라오디게아인을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시작이든 끝이든,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며, 그것은 듣는 자가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담고 있다. 이것을 이루는 메시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신적 틀, 곧 시작, 가운데, 그리고 끝 안에 자리하고 있다.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들은 영원한 복음이며, 그 문자들과 그 의미들, 그리고 서로 결합될 때 생성되는 단어는 그 원리와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을 상징한다. 이는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한다.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세 단어는 각각 그 세 글자로 시작하는데, 바로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순서대로이다.

창조 이야기의 끝을 이루는 세 단어는 함께 "truth"라는 단어를 이루는 세 글자로 시작한다. 그 구절의 마지막 세 단어는 순서대로 א (Aleph), מ (Mem), ת (Tav)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그 세 단어는 "하느님", "창조했다", "만들었다"로 번역된다. 이 세 단어가 그 순서로 각각 א (Aleph), מ (Mem), ת (Tav)로 시작한다는 점은 창조 서사의 완전함과 질서 정연함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패턴은 히브리어 본문의 흥미로운 언어적 특징으로 유대인 주석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창조 이야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세 단어로 끝난다. 창세기의 기록에 나타난 창조의 능력은 놀라운 언어학자의 서명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때 있었던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장차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예언자 요한이 강조한 것은, 어떤 것의 처음이 그 마지막을 보여 준다는 점이었다.

구약성경 말미에 제시된 엘리야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는 일요일 법령 위기와 다가오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는 맥락 속에서 동일한 예언적 원칙을 드러낸다.

"첫 언급의 원칙"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현재의 진리"가 그 안에 놓여야 할 "틀"이다. 그 틀은 "첫 언급의 원칙"이며, 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재림운동의 시작을 대표하는 다니엘서와 재림운동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요한계시록을 처음이 마지막을 설명한다는 원칙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평행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다니엘서는 팔모니라는 이름, 곧 '비밀을 놀랍게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한 속성을 제시한다. 다니엘은 또한 예수님을 대천사 미가엘로 소개한다. 요한도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하도록 쓰임을 받았고, 그는 수학의 대가나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언어의 주인을 밝힌다. 예수님을 알파벳의 주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고려해야 한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아크로스틱으로, 여덟 절씩 묶인 각 단락의 첫 글자가 같은 글자로 시작한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스물두 글자가 있으므로, 여덟 절로 이루어진 단락도 스물두 개다. 각 단락은 알파벳 순서대로 해당 글자로 시작하며, 이어서 그 글자에 배정된 여덟 절 각각도 그 글자로 시작한다. 각 글자마다 여덟 절이 있으므로, 히브리 알파벳 스물두 글자에 여덟 절을 곱하면 모두 176절이 된다. 이 시편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한다(이 때문에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진다).

시편 119편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진리다. 이 시편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용어가 여덟 가지 나온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결, 말씀, 규례. 거의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된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성격을 확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도 확증한다. 시편 119편에 제시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주목하라:

1. 의로움 (7절, 62절, 75절, 106절, 123절, 138절, 144절, 160절, 164절, 172절)
2. 신뢰성(42절)
3. 진실성 (43절, 142절, 151절, 160절)
4. 신실함 (86절)
5. 불변성 (89절)
6. 영원성(제90절, 제152절)
7. 빛(제105절)
8. 순수 (제140절)

이 시편은 두 번의 복 선언으로 시작한다.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며, 그의 율례를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 위대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기에 충분하다(디모데후서 3:15-17).

물론, 시편 119편은 종교계에서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어느 절이 가운데 절인지, 어느 장이 가운데 장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의 모든 입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성경의 가운데가 무엇인지, 절이든 장이든 간에 그 정의는 성경의 저자가 정해야지, 성경을 연구하거나 비평하는 인간이 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르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마다 각기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 2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사이, 그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다. 탄생은 시간 속의 짧은 순간이고, 죽음도 마찬가지다. 삶은 그 중간이며, 대체로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최초 언급의 법칙”에서 중간은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지닌다. 성경에서 한 구절이나 한 장을 찾아 그것을 중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록 시작과 끝이 본질적으로 시간상의 한 지점일지라도, 성경적 증거를 무시하는 일이다; 중간은 대개 일정한 기간이다. 물론 시작, 끝, 그리고 중간은 서로 부합하겠지만, 종종 끝에 있는 동일한 이정표가 시작의 반대가 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동일시하셨고, 두 사람은 같은 예언적 사건의 순서를 보여 준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을 가두고 죽이려 했으나 끝내 그러지 못한 사악한 여자(이세벨)에게 박해를 받았다. 엘리야를 상징하던 요한은 자신을 가두고 죽이려 한 악한 여자(헤로디아)의 표적이 되었고,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엘리야와 요한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상징이지만, 예언적 특징 가운데 서로 반대되는 점들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병행한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요한은 죽었다. 서로 대응하는 예언의 이정표들이 종종 서로 반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성경의 가운데 장이 시편 118편임을 보려는 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해 온 ‘최초 언급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성경 가운데의 시작이 시편 117편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두 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를 잇는 118편은 성경의 한가운데이고, 118편 다음의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성경 가운데 부분의 끝이다. 그 놀라운 언어학자는 가장 짧은 장으로 시작을 표시하고, 가장 긴 장으로 끝을 표시한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장들이다. 시작은 씨앗이며, 끝은 가운데에 있는 모든 증언들이 하나로 묶여 완전히 성숙한 식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편 117편을 주목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며, 주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117:1, 2.

우리가 고려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그 단어는 2절에서 ‘진리’로 번역되며, 성경 가운데 부분의 시작을 나타낸다(성경의 가운데 부분은 시편 117-119이다). 가운데 부분의 끝은 시편 119이고, 시편 118은 가운데의 가운데이다. 시편 118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 사이에 끼어 있으며, 시작을 이루는 그 가장 짧은 장은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를 상징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진리’라는 단어를 제시하며, 그 세 글자는 진리를 이해하는 틀이다. 그 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중간의 끝부분, 곧 119장은 성경의 한가운데에 배치된 알파벳 순서의 두운시로서, 경이로운 언어학자를 강조한다. 119장에서는 같은 단어가 네 번 ‘진리’로 번역된다.

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완전히 거두지 마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도를 소망하였음이니이다. 43절.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며, 주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142절.

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51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하니이다. 160절.

이 구절들 속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을 드러내는 성경 예언의 규칙이며, 그 구절들이 전하는 진리는 알파와 오메가께서 시작과 끝에서 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운데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셨다는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의 서명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기별을 제시하기 위한 '틀'이다. 중간 부분의 마지막에는 '진리'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하는 네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네 번째 언급은 단순히 '참'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 네 구절 가운데 마지막은 '처음부터' 그 말이 '참'임을 밝힌다.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세 단어에 의해 나타나 있다. 이는 그 세 단어 각각이 차례대로 'truth'라는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증언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사야에서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된 그리스도의 한 속성과 관련된 진리들을 나타내는 세 단어로 끝난다.

성경의 가운데 부분(시편 117-119)은 117편에서 '진리'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시작이 끝을 나타낸다는 진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단어는 영원한 복음과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조 이야기의 끝을 가리킨다. 성경 가운데의 끝부분은 놀라운 언어학자께서 만드신 알파벳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성품에 관한 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정의와 부합함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 중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거나 아예 인식되지 않았던 한 측면을 제시하도록 의도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 계시는 언약 역사의 맥락과도 일치하는데, 언약 역사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노력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 곧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는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구현되어 있다. 그것들 위에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분 위에 세우고 있다. "이미 놓여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11.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12. 말씀 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계시—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의 나타남—은 오래 지속될 품성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시다. 축복의 산, 148.

물론 이 진리에 관해 다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